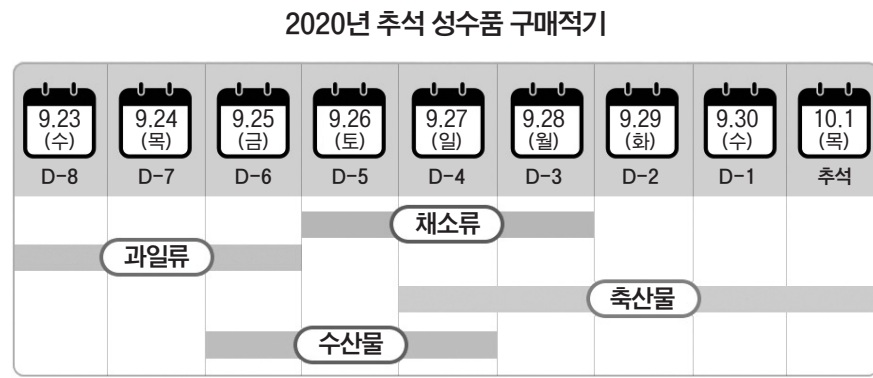


차례상 비용 줄이려면...채소 3~5일 전 구입

16일 기준 전통시장 일주일 새 1400원 오른 23만9205원
채소류 가격 급등...대형마트 5000원 상승한 34만1747원
채소 26~28일·과일 23~25일·축산물 27일부터 구입 적기

일주일 새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1400원, 대형마트는 5000원 가까이 올랐다.
배추·시금치 등 채소류 가격 급등이 상승을 주도했고, 대형매장에서는 사과·배 대과가 물량 감소하면서 상승 폭이 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6일 기준 성수품 구입비용을 조사해보니 전통시장은 23만9205원, 대형 유통업체는 34만174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인 이달 9일 조사가격과 비교해 전통시장은 1400원(0.6%) 올랐고, 대형매장은 4947원(1.5%)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추석 2주 전(8월28일)과 비교해서는 전통시장(22만7497원)은 1만 1708(5.1%) 상승했고, 대형매장(30만 9820원)은 3만1927원(10.3%)이나 올랐다.
aT 측은 전통시장 기준 품목별 가격의

경우 전주 대비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16일 기준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값은 1만1500원으로, 전주(9일)에 비해 1500원(15%) 올랐다. 시금치(1kg)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1000원(1.7%) 상승했다.
전통시장에서 쌀과 소고기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고, 대추와 동태는 하락했다.
한편 사과·배는 전통시장 가격은 보합세이나 대형유통업체는 대과 물량 감소로 중저가 판매물량이 소진돼 소비자가격이 상승했다.
aT가 광주의 한 대형매장 사과 10개(홍로·중품) 가격을 조사해보니 9일 1만 9980원에서 이튿날 1만6000원으로 내렸지만 17일 1만9980원으로 또다시 올랐다. 또 다른 대형매장에서 지난 14일 2만 3800원 하던 배 10개(신고·중품) 가격은 18일 3만9600원으로 4일 새 1만5800원



(66.4%) 뛰었다.
aT는 지난 2010~2019년 최근 10년 동안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분석해 올해 성수품 구매적기를 도출했다.
채소류는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1~2일 전을 피해 추석 3~5일 전에, 소고기는 선물세트 등의 수요가 감소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추석 4일 전~당일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aT 측은 설명했다.
과일은 제수용 수요가 많은 시기인 추석 5일 전~당일을 피해 추석 6~8일 전에 구입하는 것을 권장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주간 민간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책반은 성수품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성수품 수급을 관리한다.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전국 2420개 하나마트는 농축수산물에 10~30% 할인 판매한다. 우수 농식품·식품명인제품 등을 소개하는 우리농수산식품모음집(holidaygift.co.kr)도 운영된다.
aT는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격 조사를 벌였다.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의 차림비용 관련정보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추석 성수품 축산물 위생·안전 특별점검



농협 축산물 안전 관리자가 전남지역 한 하나마트 축산물 사업장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협 전남본부 이달 말까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달 말까지 전남 지역 320여 개 하나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축산물 사업장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본부 축산물 안전 관리자는 불시 현장방문 또는 서면점검 등으로 축산물 취급(판매·가공) 사업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장 자체 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냉장·냉동기기 온도 관리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폐기대상 제품 적정관리 여부 ▲1+1·신고기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 여부 ▲닭·오리(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 ▲위생교육일지 및 자체 위생관리기준표 작성 여부 ▲시설 및 종업원 위생·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우리 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축산물사업장 위생·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축협 지도사업 종합평가' 영암농협, 우수 농협 선정

전북 고산·충북 진천농협도

영암농협이 농협중앙회 '2020년 상반기 농·축협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 농협으로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장실에서 박도상 영암농협 조합장에 우수 사무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1107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영농교육, 영농인력공급, 농업인 지원, 농업인 돌봄서비스 등 지도사업 40여 개 항목을 평가한다. 연중상·하반기 시상하며, 이번 상반기에는 영암농협과 전북 고산, 충북 진천농협이 우수 사무소에 이름을 올렸다.
영암농협은 지도사업 종합평가 부문에서 2018년 3위, 지난해 2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냈다.
농협 조합장은 "이 같은 성과는 평소 조합원들과 임직원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영암농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지역 농업 발전 기여 '새농민상' 시상



본상에 김현홍·김덕순씨 부부, 김용인·원초옥씨 부부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18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서 '제55회 새농민상 본상'과 6월·7월·9월 '이달의 새농민상' 시상식(사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제55회 본상 수상자에는 김현홍·김덕순씨 부부(광양 월포농장)와 김용인·원초옥씨 부부(화순 늘푸른농장)가 선정됐다.

9월 수상자에는 정균관·박경자씨(담양 광일농장), 최범석·임재정씨(영광 한성농장) 부부가 선정됐다.
이날 (사)한국새농민중앙회 김안석 회장이 시상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선농업인으로써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열심히 수행한 노력을 인정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식품수출정보사이트 어떻게 이용했나요

aT, 활용 사례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가 운영하는 농식품수출정보사이트(kati.net)를 활용한 사례를 모집한다.
aT는 이달 21일부터 11월20일까지 농식품수출정보사이트 'KATI' 활용사례 공모전을 처음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식품 수출정보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농식품수출정보사이트 정보를 활용한 실제 수출계약 성사, 비즈니스 결정, 해외정보수집 등 다양한 사례들이다. 이 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총 200만원 상금이 주어진다. aT는 이번 공모에서 수집된 사례들을 분석해 향후 정보사이트 운영방향과 콘텐츠 강화 등 이용자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대표 농식품수출정보플랫폼인 'KATI'는 지난 1996년부터 농식품 수출입통계, 해외수출시장 트렌드, 각종 식품 관련 해외이슈, 수입제도 변경사항과 비관세장벽 실시간 모니터링, 주요 수출국 기별 정기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리농업지킴이운동 광주본부, 농축산물 나눔

장애인 보호시설 등

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 광주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지역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농축산물 선물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삼희 우리농업지킴이운동 광주본부장(농협 광주노조위원장)은 이날 광주시 북구 장애인 보호시설인 파인빌 등 3곳을

방문해 총 600만원 상당 농협 목우촌 햄세트 등을 전했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전국 농협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입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다양한 계층에 알리고 농·특산물 소비촉진과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